

기아차 근시안 경영... 광주경제 타격

예측 잘못 스포티지 생산라인 증설 보류
증산 약속에 생산설비 늘린 협력사 위기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스포티지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급감하고, 생산라인 증설 보류로 인한 노사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기아차 광주공장이 위기에 봉착했다.
또 스포티지 양산계획에 맞춰 생산라인 확충 등 '몸집'을 불려놓은 광주·전남지역 240여개 기아차 협력업체들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않아 지역 경제 회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해 스포티지 생산라인을 연간 15만대 생산에서 20만대로 늘리기로 노사간 합의하고, 올 8월까지 생산라인 증설공사를 마

치고로 했었다. 그러나 이후 스포티지의 시장점유율 하락을 이유로 생산라인 증설을 전면 보류했다.
지난 2004년 8월 출시후 국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스포티지는 2005년 국내 소형SUV(스포츠투유틸리티 차량) 시장점유율 56.6%를 기록, 현대의 투싼(43.4%)을 훨씬 앞질렀다.
그러나 투싼의 저가판매정책에 따라 고유가, 환율하락, 경쟁제품의 잇따른 출시 등 집중포화를 맞고 올해 1~9월 시장점유율이 37.1%로, 투싼(38.2%)에 밀려 2위로 내려앉고 말았다.

2005년 백오더 물량(계약 이후 출고를 기다리는 차량)만 3만대를 넘던 것이 올 들어 1만8천대로 감소한 반면 재고물량은 4만대를 넘어섰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생산라인 증설에 관한 노사합의가 물건너가자 노조측은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면서 19일 현재 53일째 천막농성을 펼쳐 노사간 갈등마저 심화되는 추세다.
회사측은 "빛나간 수요예측은 분명 잘못된 것이나, 증산여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면서 "품질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내외 판매물량을 늘린 후에 증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소식을 통해 "경제상황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현상에 조합도 동의한다"면서 "사측은 스포티지 점유율이 급락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

와 함께 시장수요에 적합한 스포티지의 전면적 개조와 스포티지 이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스포티지 딜레마'는 협력업체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
광주 소촌공단내 A부품업체 관계자는 "스포티지를 겨냥, 40여명의 추가인력을 고용했다. 그러나 광주공장의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부품납품액이 덩달아 줄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하남산단 B업체 대표도 "생산라인 증설과 인력고용 등으로 비용은 늘었지만 매출은 되레 감소했다"면서 "광주공장이 스포티지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협력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노무현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북한의 핵실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돈줄 막는게 유엔회원국 의무”

라이스 “대량살상무기 이전 방지해야”

韓美 외교장관 회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9일 북한 핵사태와 관련, “북한이 핵무기나 핵물질을 제3자나 3국에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오후 시내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안보리 결의를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에 대해 심도있게 예

기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금융돈줄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은 무조건 6자 협상을 외교부 청사에서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안보리 결의를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에 대해 심도있게 예

구상(PSI)과 관련, “현재의 긴장을 확산, 심화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한국과 같은) 나라와 그 정부에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고자 온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그러면서 “PSI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전제한 뒤 “(PSI가 시행된) 지난 2년여동안 각 나라에서 보유한 권한을 사용해서 위험한 무기나 무기 관련 물질을 검색하는데 국제법과 정보에 의거한 검색이 이뤄져 왔다”면서 “효과적으로 검색이 잘 이뤄져왔고 무력충돌도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줄기세포 연구 새희망-전남대 백신연구사업단

“1년내 줄기세포 100개 가능”

황우석 교수 사태 이후 ‘초토화’되다시피 한 국내 줄기세포 연구에 새롭고 강력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새 희망의 주인공들은 전남대 임상백신연구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형 교수)의 연구진들로, 현재 줄기세포를 대량으로 확립할 수 있는 기술 특허를 누가 먼저 내느냐를 놓고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존스홉킨스 대학을 벌이고 있다.
전남대 백신연구사업단은 올 초 미국 반터빌트 의대에서 스카우트한 단백질치료제 연구 권위자 조대웅(38) 교수를 핵심으로 광주·전남 40명의 교수진과 200명의 연구인력을 풀가동, 1년내에 “줄기세포의 정제성을 가지면서 대량으로 증식하는 줄기 세포주 100개를 만들어 낸다”는 야심 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환자 맞춤형 인간배아·성체 줄기 세포주 확

립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 연구는 조대웅 교수가 미국 연구시절 개발한 줄기 세포주 확립 기술을 핵심기술로 하는 것으로, 이는 황우석 교수팀이 주장했던 세포주 확립 방법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로 알려지고 있다.
황교수 팀의 김선중 연구원은 배반포에서 ‘첫 가락 기술’을 이용해 줄기세포를 추출해 내고 이를 3~4주 배양하면 클로니가 형성되면서 줄기 세포주로 확립된다고 밝혔으나 이는 우연에 의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전남대 팀의 주장이다.
조대웅 교수는 “그동안의 줄기세포 추출기술에 미국에서 개발한 ‘거대분자 세포 내 전송기술’을 접목하면 대량으로 세포주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면으로 계속)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19일 화순 전남대병원 임상백신연구개발사업단 연구실에서 조대웅 교수(맨 오른쪽)와 연구진들이 배아 줄기세포주 실험을 하고 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신설학교 납품비리 질타

광주시교육청 국감

19일 열린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당초 예상대로 광주지역 신설학교 납품비리를 둘러싼 질의가 쏟아졌다. (관련기사 3면)
한나라당 이근현 의원은 김원본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난 6월 신설학교 6곳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도 ‘큰 문제가 아니다’며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한 뒤 “조치가 미진할 경우 향후 국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교육기본법상 교육공무원의 비리 처벌은 교육감의 의무 중 하나”라며 “비리가 만연한 것은 교육감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운영월(여·55) 광주시부교육장이 김교흥 위원에게 신설학교 납품비리와 관련해 질타를 당하고 좌석으로 돌아간 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경기 부천·원미구갑)이 다음 질의를 하려는 순간 ‘×놈의 ××’라는 욕설을 내뿜

어 감사가 일시 중단됐다.
감사반장인 열린우리당 유기흥 의원(서울 관악갑)은 이와 관련, 김원본 교육감에게 윤 교육장에 대한 징계의 결 요구와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의 빠른 징계를 촉구하는 한편, 윤 교육장을 국회 회의장 모욕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IOPE

24%
진주름과 칙칙함을 동시에
매직이펙터